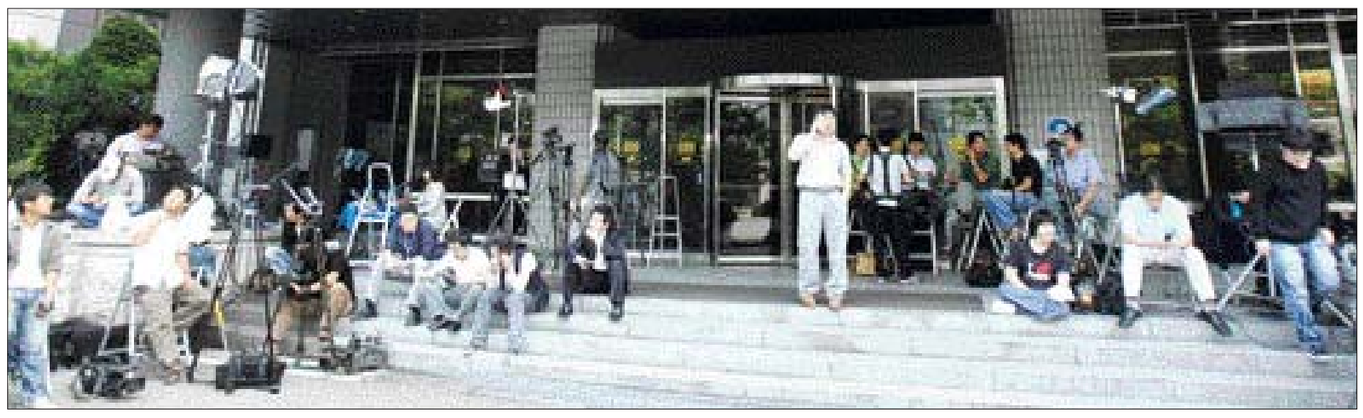
신정아 감독 선정 4가지 의문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의 뒤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짜박사' 신정아씨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의혹의 폭풍에 휘말리고있다.

특히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정은 물론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에도 개입한 것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변 전 실장이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신씨가 감독에 선임되도록 입김을 넣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신정아 파문'의 발단이 된 내·외국인 감독제 도입에서부터 예술감독선정소위원회가 한갑수 전 비엔날레 이사장에게 감독선임권을 이양하게 된 경위, 신씨의 감독 추천 배경 등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이 또 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제 오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이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한 12일 서부지검 앞에 각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진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①공동 감독제는 신씨 위한 포석?

창설 이래 지금까지 단독 감독제로 치러지던 광주비엔날레를 복수감독제로 정한 것부터가 애초에 나이가 어려 단독 감독으로는 부담스런 신씨를 앉히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회는 지난 3월15일 열린 제93차 이사회에서 2008년 광주비엔날레를 내·외국인 공동감독제로 치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 미술계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한갑수 전 재단이사장이 사실상 공동감독제 도입을 주도한 데다 이같은 중대사안을 이사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밀어붙이는 등 상식을 벗어난 추진력을 보였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제1기 예술감독선정소위원회(이하 선정위)가 당시 피 추천자로 올라온 윤진섭 호남대 교수와 장석원 전남대 교수를 놓고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탁락 시키는 상황이 빚어져 비엔날레 국내감독 선임작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광주 출신 후보 2명을 배제시킨 채 처음부터 다시 후보들을 물색한 재단의 결정을 둘러싸고 특정 인물을 감독으로 밀기 위한 '쇼'라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나온 것도 이 때다. 결론적으로 2기 예술감독선정소위원회를 통해 신씨가 감독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동감독제가 신씨의 발탁을 위한 '준비된 시나리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②논란 알았던 이사들 왜 침묵했나

본보가 지난 7월 13일 예술감독 선정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취재·보도한 결과 선정 위원 3명이 비엔날레 감독 후보로 추천된 신씨의 '학력위조 논란'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당시 위원들은 신씨의 선임 가능성이 낮은 점, 인신공격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이사들은 한 전 이사장이 감독선출권을 일임받은 8명 가운데 결격사유가 발견된 5명을 제외, 신씨가 최종 3명의 후보에 포함돼 점점 감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던 때에도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신씨의 감독 선정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사회가 신씨를 사전에 내정한 낌새를 알아차린 이사들이 시비를 피해갔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감독 후보 선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정위원들이 신씨의 학위위조 논란에 대해 일제히 함구한 점도 석연치 않다. 당시 미술계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신씨의 논란은 화젯거리였지만 선정위원 단 한 명도 재단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③강연균 이사의 이의제기 묵살

제2기 선정위에 참여했던 강연균 전 비엔날레재단 이사는 12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 제3차 선정위 회의에서 한 전 이사장과 이종상 선정위원장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신씨를 선택하기 위한 술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오전 선정위 3차 회의를 앞두고 (한 전이사장의 요청으로) 재단에서 티 타임을 갖자고 해서 서울 조선호텔 회의장 인근에서 차를 마셨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이사장이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잠시 커피숍 밖으로 잠시 나갔다 회의장에 들어뒤 갑자기 (이 교수가) '감독 선정을 이사장에게 일임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씨는 당시 "사회자가 뭔가를 정해놓고 몰고가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감독 후보로 추천된 8명의 후보를 모두 면담하는 중재안을 내놓아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감독 선임권이 한 전 이사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④이종상 교수는 신씨 왜 추천했나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후보로 추천한 장본인인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신이 신씨를 추천한 인사로 확인된 후에도 신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언론에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언행으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교수는 지난 1996년 자신의 사재 1억원을 출연해 제정한 월간미술 대상 전시기획부문 대상 수상자가 신정아씨였기 때문에 신씨를 추천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명예교수는 "신씨를 추천할 때 나이나 주소를 정확히 몰랐지만, 신씨는 화단에 잘 알려져 있어 추천할 만했다"며 "추천 때 외부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명예교수가 신씨의 학력 등 일반적인 사항도 모른 채 추천했다는 점에서 외부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

"나도 이판사판…변실장 정도 배후 수없이 많다"

신정아씨, 스캔들 공개 하루전 전화 인터뷰

"이해찬 前총리 전시장에 한번 들러"

미국에 도피중인 신정아씨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호 의혹과 관련, "변 실장 정도가 권력 배후면 난 수도 없이 많다"며 "청와대 여비서관들과는 알고 지냈지만 청와대나 봉하마을(노무현 대통령 고향)에 그림을 넣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인터뷰는 지난 7월 이후 미국에 머물고 있는 신씨가 변 실장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날인 9일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씨는 '잠적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 파리에서 귀국할 당시) 서울 가자마자 성곡미술관에 전시회를 인수인계해주러 들렀다. 그 밖에 당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양균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난 변 실장 잘 모른다. 변 실장은 전시장에 몇 번 왔다 갔다. 그런데 (변 실장) 정도가 권력 배후면 난 수도 없이 많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성곡미술관 옆에 한정식 집 많지 않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왔다. 이해찬 전 총리도 아프리카 전시할 때 왔다고 미술관 사람들이 난리쳐서 내려가서 봤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에 도움을 받았나'는 질문에 "외압이 있었으면 서울대 안 가고 동국대 갔겠나. 광주는 나도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가'라는 질문에 "나는 이제 완전 거지다. 이판사판, 잃을 게 없다. 내가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인생 한 방에 갔다. 언론이 뒤집어 놨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신씨는 "나보고 월급 240만원 받고 어떻게 월세 200만원짜리 집에 살았느냐고 하는데 내 연봉만 미술관이랑 동국대 합쳐 1억원이 넘는다. 검찰이 우리 집 압수수색 했다는데 침대 밑도 봤나 모르겠다. 빳빳한 100만원짜리 신권이 가득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신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신씨의 침대 밑에서 현찰 묶음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정아 작년 청와대 2회 방문

"9월 방문땐 변실장이 피면회자"

가짜 학위 파문의 주인공인 신정아씨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비서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중 한번은 변양균 정책실장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출입했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방문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씨가 지난해 8월과 9월에 비서실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방문 때는 알고 지내던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 A씨(전 청와대 행정관)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중인 행정관 B씨를 방문, 함께 청와내 경내를 관람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방문 때 신씨의 비서실 방문 신청서에는 피면회자가 당시 변양균 정책실장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확인 결과 신씨는 당시 변 실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변 실장 사무실에서 변 실장의 보좌관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변양균 윗선, 아는 바 없다"

권양숙 여사, 예술계와 교류 전무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위위조 파문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뛰어넘는 '윗선'이 개입됐을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의혹과 관련해 "제가 아는 한은 없다"고 12일 말했다.

권 여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일원에서 개막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개막식 참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정아 사태에 변 전 실장을 뛰어넘은 '윗선'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에 대해) 아무런 아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여사는 "대통령이나 저희가 (변) 실장이 (이번 사태에) 연루되어 곤혹스럽다"고 밝히고 "'윗선'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대통령과 제가 '윗선이 누구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면서 "대통령이나 저나 중앙정치의 이단적인 존재라 인맥이나 인연이 일천하며 특히 문화예술계와는 교류를 나눌 기회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